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14차 세션, 원죄, 로마서 5:12-19, 로마서 1:18-3:21의 맥락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원죄, 로마서 5:12-19, 로마서 1:18-3:21의 맥락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교리인 하마르티올로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으므로, 우리는 원죄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에 빠진 것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존 마호니는 이미 이 부분에 집중했으므로, 간략한 요약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완벽한 환경에 두셨습니다.

그는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남자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7.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의 도우미로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도구인 교활한 뱀이 요한계시록 12:9에 비유되어 하와에게 말을 걸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금지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금지령을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의 이전 경고를 부인하며, 인용하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너희 눈이 열리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신다”고 말합니다(4, 5절). 그때도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과 불충실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죽음은 즉각적이고 궁극적이었습니다. 즉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다는 점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에서 숨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직면하셨을 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제외하셨고,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악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아, 너희는 내 아이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죄에서 건져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필멸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영망진창입니다. 확실히, 더 넓은 문화적 삶은 영망진창이고, 등등.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제외하신 것은 자비로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영적으로 즉시 죽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시고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을 하셨을 때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기 위해 희생 동물을 바친 것과 연관시킵니다.

후에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첫 조상의 죄에 대한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에 대한 신학적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콘서트 피아니스트에서 구약 학자가 된 데릭 키드너와 저는 그의 글을 좋아합니다.

오, 성경적이네요. 정말 잘 쓰여졌어요. 그는 문제의 핵심을 정말 잘 짚어냈어요.

그는 최근에 주님과 함께 하러 갔습니다. 그의 글은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InterVarsity가 그 중 일부를 새로운 학술 자료로 대체하기 시작했을 때,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출판사가 Derek Kidner 도서관을 시작해서 그의 모든 글을 다시 볼 수 있게 할 만큼 향의가 많았습니다. Derek Kidner는 인용문에서 원죄 교리가 창세기 3장에 잠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은 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12는 신약에서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성서는 이 이야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인간의 속박을 증언합니다. 교리의 자료는 있지만,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틴데일 구약성서 주석.

사도 바울은 원죄 교리를 공식화한 사람일 것입니다. 신약은 로마서 5장에서 원죄 교리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원죄. 개요, 로마서 1:18절에서 5:21절까지의 분석.

두 번째는 로마서 5:12에서 19까지의 그리스어 본문에 기초한 자세한 연구인 주해입니다. 아니면 21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리고 다양한 칼빈주의적 견해를 포함한 원죄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런 다음 방금 읽은 것과 같은 원죄에 대한 견해를 평가하겠습니다.

그 평가에서 저는 제 결론을 적용하고, 이어서 원죄 교리의 체계적이고 목회적인 의미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5:12~19의 원죄. 로마서 1:18~5:21에 대한 분석.

로마서의 이 부분은 칭의 교리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당신은 잠깐만요, 당신은 이전에 로마서 5:12-19가 고전적 본문, 즉 원죄에 대한 *textus classicus*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것이 로마서의 한 구절에 있는 주제가 칭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사실입니다. 칭의라는 주제에 관해서, 로마서 5

:21은 원죄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 고전적인 본문이지만, 그것은 주로 칭의와 원죄를 연결하는 칭의 구절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과 매우 친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18에서 3:20까지, 그 긴 구절은 정당화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3:21에서 5:21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 필요성을 어떻게 충족시키셨는지 알려줍니다.

로마서 4장 사이에 믿음에 대한 장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그의 서신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대인에게 먼저 또한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복음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복음, 곧 좋은 소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됩니다.

나는 루터의 투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의로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때때로 그의 정죄하는 의로움, 그의 저주하는 의로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그리고 그것은 루터의 마음속에 채워졌다.

그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의 마음은 그 개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루터는 말합니다. 오, 저는 그 하나님을 참을 수 없어요.

그는 불쌍한 죄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는 죄인들에 대한 그의 정죄를 드러내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신에게 주먹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교활함이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루터가 천천히 그리고 기쁘게 깨달은 것처럼, 바울은 저주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하박국 2:4를 의롭게 된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신뢰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루터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그는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걸어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폴은 자신의 주제를 발표한 후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만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드러난다고 말한다.

바울은 그의 주제인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를 선포한 후, 18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가 아니라 그의 진노의 계시에 대해 말합니다. “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바울은 문장에서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는 의로움을 들어올리고, 그 자리에 진노를 두었습니다. 그는 의로움을 진노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말입니다. 의와 진노가 서로 어휘 의미론과 패러다임적 관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 있습니다. 즉,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들은 서로 적대합니다. 사도가 말할 의로움은 죄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증오라는 배경과 별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1:18에서 3:20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구원의 의를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해 그의 진노를 다루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1:18이 1:18에서 3:20까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로마서 전체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사실입니다.

첫째, 이 구절의 내용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때까지 죄인들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3:21에서 바울은 1:16과 1:17에서 이전에 발표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별도로 나타났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다는 그의 주장에서 진노라는 단어를 빼고 3:21에서 그 자리에 의라는 단어를 다시 넣었습니다. 여기서도 1:17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6과 1:17에서, 내가 본 모든 주석가들이 동의하듯이, 바울은 로마서의 목적 진술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복음, 구원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의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그는 의라는 단어를 빼고, 진노라는 단어를 넣고, 320까지 그대로 둡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구원,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에 의한 죄인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죄와 진노와 심판의 교리에 비추어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다루는 그 장들, 그 절들은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청록색을 아름다움과 광채를 강조하기 위해 넣은 짙은 보라색이나 검은색 보석상의 천과 같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118에서 320까지의 주제인 우리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해될 수 없다.

1:18에서 3:20은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사도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죄받는지 보여줍니다. 첫째,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즉 그의 자연법, 말하자면 1:18에서 1:32까지를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모든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스스로 정죄받는다(2:1~16). 두 번째 그룹은 1:32와 2:1을 비교하면 첫 번째 그룹과 구별된다. 1:32는 로마서 1:32를 보여준다.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을 자격이 있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알지만,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에게 승인을 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다른 죄인들을 죄의 삶으로 부추기고, 죄를 짓도록 동료 압력을 가합니다. 2:1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희가 판단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나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네가 판단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함이니라. 전자의 무리는 고의로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느니라, 1:32. 야호, 죄를 짓자.

후자 그룹, 2:1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후자 그룹은 위선적이지만 전자 그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한다면 더 정직한 죄인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쁜지 모르겠고, 둘 다 나쁩니다. 로마서 2:17-29는 세 번째 그룹, 사실 바울의 주요 초점인 유대인을 암시합니다. 유대인은 자연법과 마음에 기록된 법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독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은 다른 법들, 자연법, 마음에 있는 법보다 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대문자 L인 율법은 그 법들보다 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을 정죄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 창조의 계시, 인간의 마음에 있는 계시, 특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 세 번 정죄를 받습니다.

저는 이 맥락에서 조금 일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18, 19,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함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항하여 나타납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남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계시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하다. 바울,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는 말한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 즉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와, 와, 와, 타임아웃. 보이지 않는 속성, 분명히 인식됨. 그는 아름다운 수사학으로 글을 쓰고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주의를 끌지만, 의미는 신의 속성, 그를 신으로 만드는 신의 특성, 다른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 당신은 거룩한 성경에 계시된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의 속성, 그리고 그는 그 중 두 가지를 골라내셨습니다. 그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 그의 전능함, 그리고 그의 신성 그 자체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만들어진 것들 속에서 분명히 인식되어 왔습니다.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인식되었습니다.

와. 시편 19:1,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 하늘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그것이 낮과 밤, 그리고 모든 곳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은 그의 창조물 속에서 끊임없이, 항상, 어디서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으악. 그리고 폴도 동의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세상을 관찰한 이래로,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은 그가 만든 것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분명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에서 보이게 된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의 계시가 죄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며 이 세상을 만드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는 그들을 붙잡고 계셔서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이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종종 그런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창조물에서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셨고, 그들은 창조 이후로 그의 창조물을 보았고, 그가 만든 것들을 보았고, 그는 강력하고,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나 신들에 대한 개념이 없고, 어떤 종류의 예배도 없는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무신론적 세계관을 구성하고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적어도 그들이 만족할 만큼은, 매우 교육받은 인간들만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잘 압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아는 것으로 더 잘하지 못하지만, 최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 친구 중 한 명을 생각하는데, 그는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며 주님을 섬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살하기 위해 절벽이 있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는 너무 우울했고, 그는 바깥을 바라보며 생각했고, 그는 바라보며 생각했고, 그는 돌아서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내 생각은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신은 존재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다행히도, 그는 원시인이 그렇듯이, 교육받고, 거만하고, 허세 부리고, 반항적이고, 무신론적인 사람보다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부 잘못된 창조의 속성을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거나 감사하지 않았고, 그들의 생각은 헛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죄의 노이스(nous) 또는 정신, 또는 생각, 생각, 정신, 생각, 이성에서 비롯된 노이스의 노이스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죄가 인간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거나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무하게 되었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혜롭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필멸의 인간을 닮은 형상, 이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숭배하고, 더 나쁘게는 새, 동물, 심지어 기어다니는 것까지 숭배합니다. 신의 일반 계시, 그의 자연 계시는 모든 인간에게 전달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에서 빛이 전혀 없을 정도로 깊이 탐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들이 빛의 근원을 끄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여러 근원이 없다면, 그들은 거기에 갇힐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게 제 목적입니다. 그저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9편에서 말했듯이 회로가 있고 끊임없이 신을 증거하는 태양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나가, 태양아. 나가, 달과 별들아.

어둡고 조용하고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때 내 호흡 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의 능력과
 신성의 증거이며, 그가 나를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와 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포함하여 그가 만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내주셨고, 더러움에 내주셨고, 그들끼리 그들의
 몸을 더럽히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라고 할 수 있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에게 매달려야 했고, 그들은 한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섹스 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고, 아담은 이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섹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결혼의
 맥락에서 서로를 즐기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이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적 죄에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이
 교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불쾌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인간을 위한
 그의 뜻을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주 하듯이 자신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영원히 축복받으신 분, 영원히 축복받으신 분, 아멘.

이런 이유로,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관계, 즉 남자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바꾸어,
 자연에 어긋나는 관계를 맺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서로 정욕에 사로잡혔으며,
 남자들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으며,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성경이 동성애적 죄를 포함한 성적 죄를
 정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학,

가르침, 윤리를 공동체 기준이나 인간이 제안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 또는 인간 철학에 맞추지 않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이 신학과 윤리,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최고 권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성애적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못되게 말하거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말하거나 어떤 신념을 가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부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수받은 교사로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 죄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 문맥에서 성적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언급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들은 수다쟁이, 중상모략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무례한 자, 거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 나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알고 있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그의 세상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칼빈의 감각 개념 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인 디비니타티스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죽을 만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그는 전도서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더 잘 아는 것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 죄, 그리고 그가 방금 나열한 모든 죄에 빠져 있습니다. 2장에서 그는 다른 집단을 심판하고 그들의 필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죄에 대해 잔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정당화에 대한 섹션이고, 그는 거기에 도달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 술러, 로버트 술러, 개혁자들이 죄와 심판에 대한 이 끔찍한 잡담에 빠져 있다고 비난한 설교자, 그리고 그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려고 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루터가 나쁜 소식이라고 부른 것을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euangelion 이고, 루터는 우리는 ka kangelion 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Kakos는 악 , 나쁜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쁜 소식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믿는 데 필요한 배경을 마련합니다. 이미 로마서 2:1에서 바울이 제가 제안했듯이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유대인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소 중립화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주의자나 유대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이여, 남을 판단하는 너희 각자가 자기를 정죄하나니 이는 판단하는 자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임함을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행하는 사람이여,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과 인내의 풍성함을 과소평가하느냐? 하나님의 자비가 너를 회개로 인도함을 알지 못하느냐? 네 마음 곧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네게 진노를 쌓고 있느니라.

죄인들이 영원한 정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그 길이가 아니라 영원한 정죄이지만, 그 심각성, 그 강도는 하나님께 반항함으로써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12절, 율법 없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율법 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은 모든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때, 그들은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이고,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며, 그들의 상충되는 생각들이 그들을 고발하거나 심지어 변명합니다. 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십계명이 없는 이방인들은 스스로에게 율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시를 포함한 일반 계시에서 밝혀진 자연법과는 다른 법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의 효과입니다. 에베소서 4:22~24에서 언급한 Imago Dei의 도덕적 측면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생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본성에 도덕성,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었는데, 양심은 당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범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본질적인 감각에 따라,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바울은 하나님의 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 즉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은 더 나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은 두 배로 정죄받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 번입니다. 창조 속의 신의 법, 마음 속의 신의 법, 글 속의 신의 법.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여기서 유대인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스스로에게 율법이야. 웰.

그래서 인간은 동굴 속의 남자가 보여준 것처럼 일반 계시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또한 다른 의미에서 일반 계시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물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그의 아름다움, 창조주의 직분, 창조주의 지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어를 만들 수 있다면, 그의 권능, 그의 지혜를 드러내지만, 그의 거룩함, 그의 정의, 그의 은혜, 또는 복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의 신의 법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고발하기 때문에 신의 거룩함과 정의를 드러냅니다. 양심은 척도, 기압계, 온도계로,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심판관에 맞서 일합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와 삶의 구조에 내장된 신의 법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압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고 있고,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당신의 발가락을 밟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아야,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비난은 당신이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에게 잘못된 일이 행해졌을 때, 당신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전문가입니다.

당신이 틀렸을 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문에 관해서는, 오, 당신은 그것을 재빨리 지적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만들어진 이 도덕적 척도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 법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의 도덕적 계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도덕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면, 인간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반항하고 우상 숭배, 성적 죄, 그리고 로마서 1장 마지막에 언급된 온갖 죄에 빠지면서 정죄받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그들 안에 내재된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어길 때도 정죄받습니다.

그것들은 양심과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번째 방식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17에서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승인하고 자신이 눈먼 자에게 인도하는 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요 어리석은 자에게 가르치는 자요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자요 율법에 지식과 진리의 체현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네가 성전을

강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52 :5. 율법을 지키다면 할례는 참으로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범하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와. 29절, 하지만 유대인은 속으로 유대인이고, 할례는 글자가 아니라 영으로 마음에 하는 일입니다. 아마도 찬양을 뜻하는 유다라는 단어의 장난일 겁니다.

그의 찬양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유다, 유대인,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통해 바울은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창조물 속의 계시는 우리에게 그 변명을 남깁니다. 마음 속의 계시는 우리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더 나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마음의 법과 창조물 속의 법보다 훨씬 더 나은 정죄자이자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 세상에. 로마서 3장 초반에 유대인들이 누리는 이점을 옹호한 후에 바울은 은혜에 대한 강조가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신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그냥 낙담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6. 그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그는 거룩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시편 51편을 인용하는데, 제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생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지막 날에 의롭다고 인정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그가 인용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바울이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인간의 죄성이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데에만 기여한다면, 왜 우리는 야생 동물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전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오, 바울은 그것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더 많은 선이 오도록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비난하듯이, 바울의 말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정죄는 정당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유대인들이 더 나은가? 로마서 3:9.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기록된 대로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 아래 있는 인간, 마음에 율법을 지닌 인간, 손에 율법을 지닌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신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오, 그들은 스스로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두 돌아섰습니다. 함께 그들은 무가치해집니다.

아무도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 단 한 명도. 어떤 언어?

포괄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1:18에서 이전 장에 대한 요약의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말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체의 도구, 즉 여러분의 신체의 지체를 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듯이, 이제는 그것을 의의 도구와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글쎄요, 그는 여기서 전자의 요점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들은 혀를 사용하여 속입니다.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입은 저주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기에 빠르다.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18-3:20에서 바울은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립니다.

3:21,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16과 17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돌아가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오용했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취했지만 대신 그것을 교만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2:23. 그녀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가 없는 이방인들보다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야만인 무리입니다. 로마서 2장 17-24절. 그녀는 자신의 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했지만 스스로는 법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따라서 모든 위선자 중에서 가장 심한 위선자였습니다(21-24절). 이스라엘은 참된 종교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영의 내적 사역인 마음의 할례를 율법에 대한 외적인 일치, 즉 육신의 할례로 대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함으로써 좋은 이름을 잃었습니다(28, 29절). CEB 크랜필드는 로마서에 대한 그의 위대한 주석에서 결론적 관계절이 아마도 유대인을 의미하는 야후 디와 칭찬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인 야다의 군사와 그 파생어 사이의 연결에 대한 의도적인 유희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9:35, 49:8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상한 유희이며 유대교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랜필드의 로마서에 대한 국제적 비판적 논평. 로마서 3:9-20은 1.18에서 시작된 바울의 주장의 정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그는 9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유죄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10-18절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죄성을 보여주는 구약성경 본문 모음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최종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의로운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부인합니다(10절). 그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찾으셔야 그들이 그분을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여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자신을 추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한 사람도 선하지 않다는 그의 비난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3:10에서 18까지를 12절과 13절 사이로 세분화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 바울은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6:13에서 명확히 언급할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선이나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신체의 지체는 물론 악에 쓰인다. 혀는 13, 14절. 발은 15-17절.

그리고 눈, 18절.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항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1:18에서 3:20까지를 3:19와 20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창조 아래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 유대인은 율법의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자연법, 마음 속의 법, 모세의 법. 바울은 21절에서 1:16과 17의 선포된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대한 계시.

다음 강의에서는 이 주제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맥락에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19절, 곧 위대한 원죄에 대한 구절을 설정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원죄, 로마서 5:12-19, 로마서 1:18-3:21의 맥락입니다.